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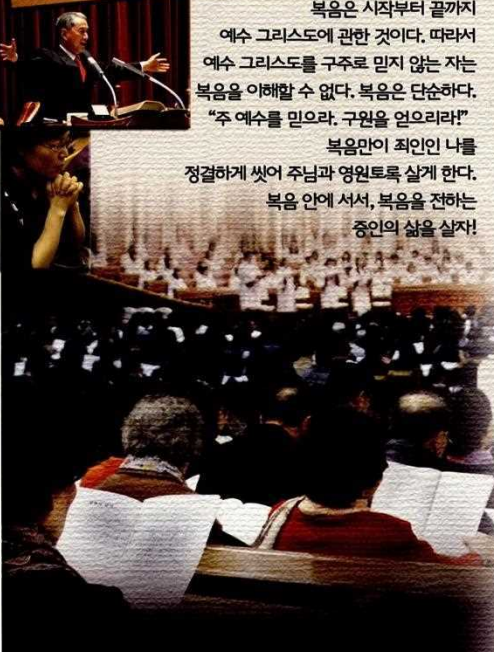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은 단순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만이 죄인인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한다.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



2011년 제2차 청지기헌원 메시지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린도후서 4:3~4)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골 1:16~17) 복음은 신화가 만들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자식이 만들 수 없는, 죄를 속죄하시는 기쁜 소식이다(고전 1:17~18). 복음 안에는 철학이 주는 지혜나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풍성한 지혜와 기쁨이 있다(고전 2:7~9).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골 1:26~27). 우리의 초점은 죄 사함을 위하여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야 한다.

1.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전 2:5).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고전 1:27~30). 복음이 가리어진 이유는 복음이 불투명하고 모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딤후 1:15~16; 요 3:3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는 어떠한 교육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롬 1:23~25; 요 3:16). 모세가 들어 올린 뱀을 쳐다본 자만이 살아났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행 16:31; 골 2:20, 23). 영적으로 처절한 빈곤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눅 18:17).

2.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 자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된다(골 10:9~11). 구원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중 하나다(골 20:12~15). 지금은 죄인이지만 죽기 전에 구원받으려 하는 이종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골 2:6~8). 만일 자신의 구원에 의심이 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보혈을 받아야 한다(고후 5:17~19).

3.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도록 눈을 덮는다(대요일 2:15~17; 빌 3:18~19).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를 사랑한다(고후 11:13~15). 인간이 존경하고 경배하는 자의 훌륭한 옷차림 속에 마귀가 들어 있다(고후 4:3~4).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눅 9:25~26).

두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골 3:9~12).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다(골 3:22~24).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죄와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다(빌 3:20~21). 영원토록 변치 않고 계속되시길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찾을 수 있다. 죽음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게 될 때 복음이 가리여지지 않은 증거자로 세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사하라!

다음 주일(7월 3일)

맥추감사절 및 제5차 성찬식

맥추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추수감사절의 하나로 보리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출 34:22), 즉 오순절과 관련을 갖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의 다음날인 초칠절 절기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절기로서 엄숙한 가운데 하루 동안만 행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쌀 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추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2011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천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성찬식과 함께 드리기에 더욱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살후 2:13). 주님께 드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골 2:7).

*오월 찬양예배 시, 2011년 제3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7월 교회일정

**3일(주) 맥추감사절 및
제5차 성찬식(1~5부 예배)**
5일(화) 대각부 수련회(5~7일)
6일(수) 평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8일(금) 에바다부 수련회(8~9일)
9일(토) 장년1부·장년2부 수련회
25일(월) 고등부 수련회(25~27일)
**26일(화) 영아·유아·유지
초등1부·초등2부 성경학교**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Luke 22:19)

In today's Bible verse, Jesus gives His disciples an order. He asks them to remember Him as they partake in the Lord's Supper. Jesus doesn't require us to do that much, so we should do what He wants well. When we take the bread of the Lord's Supper we must think about Jesus because He asks us to. What should we remember about Him during this special time?

We should remember Calvary, the place where Jesus suffered. There are a lot of religions that have their own stories, but Jesus Christ's crucifixion is not a story. It is actual history. Jesus endured great pain on the cross at Calvary. He sacrificed His body for all sinners. Only His blood washes away our sins,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1 Jn. 1:7). Everyone who places their faith in Jesus Christ is saved,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Rev. 5:9). Calvary was a dark and foreboding place. The worst crime in history happened at Calvary, the purposeful suffering and death of God's only Son, ou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We should remember the tomb, the place where Jesus' dead body was laid to rest. Jesus died! "Now from the sixth hour darkness fell upon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Mt. 27:45-46, 50). The Bible tells us that Joseph, a disciple of Jesus, helped with Jesus' burial, "And a man named Joseph, who was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righteous man (he had not consented to their plan and action), a man from Arimathea, a city of the Jews, who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this man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And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a linen cloth, and laid Him in a tomb cut into the rock, where no one had ever lain"(Lk. 23:50-53). After all His suffering, Jesus died on the cross at Calvary. His dead body was taken down from the cross by Joseph, who placed it "and laid it in his own new tomb, which he had hewn out in the rock; and he rolled a large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and went away"(Mt. 27:60).

We should remember His resurrection, Jesus being the first fruit of new life. When some of His followers had come to His tomb to prepare His body, two angels told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spoke to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saying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Lk. 24:5-7). Jesus, in His resurrected body, told His disciples,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ould suffer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Lk. 24:46-48). Jesus had assured Martha concerning Lazarus' death,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Jn. 11:25-26).

We should remember Olivet Mountain, the place where Jesus ascended. After Jesus commissioned His disciples in His resurrected body at the Mount of Olive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Ac. 1:9). Jesus ascended into heaven to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e is the radiance of Hi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an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having become as much better than the angels, as He has inherited a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Heb. 1:3-4).

We should remember Jesus' return.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T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mount called Olivet, which is near Jerusalem, a Sabbath day's journey away"(Ac. 1:10-12). Jesus is coming back! He told His disciples about His return, "And th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and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Mt. 24:30). Paul instructs us concerning the Lord's Supper,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1 Cor. 11:26).

My dear friends, let's come to this Lord's Supper remembering our Lord's suffering and death at Calvary, His dead body placed in a tomb, His Resurrection on the third day, His Ascension at Olivet Mountain, and His coming return. Please keep these five important events at the forefront of your mind as you partake in today's Lord's Supper. Amen.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19)



김성완 목사

오 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 함께 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할까요?

갈보리를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갈보리를 기념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에는 다양한 전설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은 전설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갈보리는 어둡고 음침한 장소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최악의 범죄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된 고난과 죽음임이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장사된 무덤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육시부터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마 27:45~46,50).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제자 요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눅 23:50~53). 모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가지고 갔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마 27:60).

부활을 기념하자

우리는 새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이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을 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고 없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 24:5~7)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라고 말씀하시므로 마르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감람산을 기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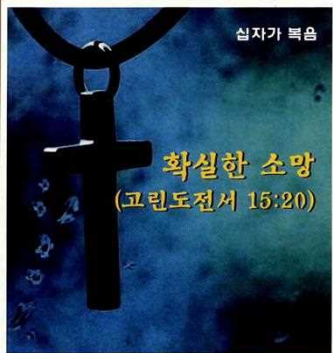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을 기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9).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히 1:3~4).

재림을 기념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해야 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행 1:10~12).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주님의 만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도 재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에서의 주님의 고난과 죽음, 무덤에 장사된 죽은 몸, 삼 일 만의 부활, 감람산에서의 승천과 재림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중요한 다섯 사건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 월요새벽기도회



십자가 복음

확실한 소망 (고린도전서 15:20)

부활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자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전할뿐이다. “곧 그리스도가 고

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이다 하니라”(행 26:23).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의 초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보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얻는 행통한 삶을 간절히 원한다. 지금 우리 삶의 초점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소망이 있는가?

●소망 없는 삶은 무가치한 것이다

신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다. 겉으로 볼 때 제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은 무가치하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밝혔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9). 그럼에도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으로 가득하다. 이것의 종말은 죽음이다. 확실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뿐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고, 다대세로 모든 바울도 만나주셨다(고전 15:4-8).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의 산 증거인 것이다. 문제는 이 확실한 증거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에 관해 이해하려고 할 뿐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잡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고전 15:17-18). 하나님인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행 2:6-8; 고전 15:20). 확실한 소망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2-23).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반드시 살 아난다(요 5:25).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과 축복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영원히 속하는 삶이다(요 11:25).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일어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살전 4:16-17).

지금 우리 삶의 초점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행통한 삶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참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소망, 그 자체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84

유다의 입맞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을 때 유다가 군인들에게 보낸 신하였던 입맞춤에 대한 복음서의 기술이 각각 다르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이 유다의 입맞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마태는 예수님이 “친구여”(마 26:50)라고 유다를 호칭하셨다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유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고 기록하였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눅 22:48). 이와 같이 누가는 입맞춤을 팔았던 유다를 직접적으로 밝혔다. 열두 제자를 처음 소개할 때에도 누가는 유다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눅 6:16).

또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는 무리의 인술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혔다(눅 22:3,47).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우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의 지도자가 유다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행 1:16). 그리고 제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니”(행 1:25). 이와 같이 누가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유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을 때 의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선생에 대한 예의로 입을 맞추려고 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유다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특히 ‘입맞춤’과 ‘인자’라는 단어는 대조를 이룬다.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을 보일만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셨다. 인자(人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연합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입맞춤이라는 외식으로 다가오는 유다에게, 입맞춤과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다(눅 9:44, 18:31-33, 22:22). ‘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대표적일 말씀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자를 두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3-14). 순교자 스테반은 이것을 이렇게 하였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행 7:56). 연합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찬송 드려야 할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5:12).

입맞춤이라는 전통과 형식만을 내세울 때 우리는 유다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배신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분명,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종말은 비참했다(행 1:18).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자존심과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을 때 우리는 입맞춤으로 포장된 나의 길을 가게 된다.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뿌리박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천국에서 다시 보고 싶다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 날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침대 같은 곳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가까이 가 보니 죽을 병에 걸린 듯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옆으로 누워 계셨다.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영접기도를 할 때 할머니는 따라하시며 계속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았다. 그 때 나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할머니에게 있는 악한 병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이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셨다. 가야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머니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꼭 천국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보고 싶다.

강재현(대학부)

오직 예수님 그뿐이다

사역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트남의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 땅의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말 사람의 의지라거나 생각, 경험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그뿐이다. 사역을 하고 선교 준비를 하고 공양에서 이렇게 소감문을 쓸 때나 밥을 먹을 때, 손톱을 깎을 때 등등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늘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윤혜리(대학부)

예수님 품에 교육 안기어 있는 느낌

5교구 1팀

♥ 선교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말레이시아 오후아수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앞선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만나고 거름을 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최동식 안수집사)

♥ 세상과 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아들 집에 오신 시아버님. 그렇기에 이번 선교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리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화 집사)

♥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불듯이 부어 주셔서, 온전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저와 돌이켜 나누는 교동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지 가슴이 벅찼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서 저를 운명하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완강한 모슬렘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어눌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영접기도까지 마칠 수 있게 해 주실 때에는 제가 예수님 품에 교육 안기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정재현 집사)

♥ 사역 첫날엔 노상에서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을 지닌 남성이 있기에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술로 주님께 영접기도를 드릴 때 저의 연약함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주님께서는 말레이시아 원주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주님을 알고 있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저마 밀의 애굽을 저에게 보이며 자기 조상의 위대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문완성 집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방글라데시

위 치: 인도반도 북동부
면 적: 144,000km² (한반도의 2/3)
수 도: 다카(Dhaka)
주요종교: 벵갈족(98%), 비함, 차크마, 무갈, 아랍인, 파탈족 등
공용어: 벵갈어
종 교: 이슬람교(89.5%), 힌두교(9.6%), 기독교(0.3%)
인 구: 1억 5,800만 명
(2010 CIA 통계, 세계 7위)

1. 소개

- 남부 아시아의 인도 북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인도에 속했던 지역으로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파키스탄으로 독립하였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벵갈족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핍박을 받아온 동파키스탄은 1971년 3월 26일 유엔 독립전쟁을 통해 서파키스탄(지금의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 세계 제일의 인구 조밀국으로 외국 원조가 정부 재정 지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공핍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 열대몬순 기후로 7~9월에는 홍수가 발생할 경우가 많아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 식품 부패가 쉽고, 콜레라, 설사 등 수인성 질병에 주의해야 한다.
- 단기선교 사후평가를 종합해 보면 모슬렘 인구가 89.5% 정도이며, 배타적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힌두족 중심으로 선교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 특히, 어린이 사역을 잘 준비하면 효과적이며, 인구가 많아서 어디서든지 전도가 가능하나 모슬렘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교 현황

- 과거 몇 년 동안 매년 1~2팀밖에 파송하지 못했고, 올해도 아직 신청한 팀이 없다.
- 열악한 국가 환경과 회교 국가에서 발생 가능한 핍박을 두려워하여 선교 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다.



3. 기도 제목

- 회교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선교팀 파송을 위해
-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오직 방글라데시의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선교가 이뤄지기를 위해
- 특별히 힌두교인 및 어린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가 이뤄지기를 위해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7일(월) ~ 7월 4일(월)	9교구 2팀	오준분
6월 27일(월) ~ 7월 5일(화)	5교구 3팀	김희동
6월 27일(월) ~ 7월 5일(화)	11교구 4팀	김현배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2교구 1팀	이성배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5교구 1팀	박원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3일(월) ~ 6월 21일(화)	10교구 1팀	한희자
6월 14일(화) ~ 6월 22일(수)	23교구 1팀	박노익



그 후 1년...

1년, 그리고 2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3개월여의 수술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도 하나, 둘 손에 익어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의외적으로 변화한 제 모습들입니다.

한편, 저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업무에 쫓겨 뒷전으로 밀려버린 주님과 교제가 생각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흥얼거리던 모습들은 기억 저편 너머에서 추억처럼 감백일 뿐입니다. 병원 업무 가운데 환자를 대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여 폭풍처럼 흘러가고 마는 지난 시간들만이 있었습니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아서 부는 바람에 꺼지지 않는 것만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고난에 감사해야 했음에도,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기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

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가장 낮고 미천한 곳으로 보내사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며 언약의 성취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그 사랑을 진중으로 깨닫고 섬기게 하시길 확신합니다. 썩어져 버릴 세상 가운데 나를 택하사 참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무명(청년1부)

*이 글을 쓴 청년은
1년 전 전 환공을
전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도행의 은혜를 누리며

피택권사로서 부름 받고 훈련에 임한 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부족한 저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강한 훈련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당황도 되고, 너무 긴 여정 같아 염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지속해야 하므로 첫 시간 강의 개요를 듣고 나서는 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네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했던 초기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움직이게 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철저한 회개의 삶 속에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적인 저의 속성을 향해 금욕하여 여기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말입니다.

늘 구경꾼에 지나지 않던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사(大使)는 언제나 본국의 훈련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민첩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승권자인 하나님의 훈련에 귀를 열어 두었다가 언제라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불러 주심 감사하여 마지막 남은 기간도 감사하여 감당하고 싶습니다. 늘 교만하여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존귀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미혹으로 변질과 패배가 발생될 때라도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거들나길 원합니다. 정치가로서의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몸과 마음 바쳐 주님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이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서도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하듯 하길 원합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은혜를 매번 망각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쓰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순종과 감사로 이 작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기간 낙오하지 않고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박정혜(배교구, 집사)

우주의 먼지 같은 나라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최종 면접을 보러오세요'라고 교회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나는 여러동절하고 당황했다. 아직 나는 너무 부족하고 약한데, 그래서 그저 목목한 교회에 다니며 믿음생활만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이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보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문자를 주셨네요.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데 안수집사라니... 그렇지만 순종하기로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는 믿을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다고 생각했기에 언급감성, 교회의 향존적인 안수집사의 자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무식한 어부 배드로를 불러 제자 삼으신 주님, 또 80세의 늙고 힘 없는 모세를 택하사 유대인들을 예급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나오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별레처럼 미약한 나도 들어 쓰시려나 보다 생각되어 감사하고 감사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다.

바쁘고 또 바쁜 중에도 토요일에 하는 피택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내 사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교육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결심을 하면서 교육이 끝난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데 조금의 힘이라도 되고, 믿음 생활이 더 강건한 여지길 바라면서 능력의 주님께 은혜, 거룩한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 '우주의 먼지 같은 나라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전진하고 있다.

배현수(집사, 23교구)



2011년 의료선교의 날

지난 6월 12일 주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의료선교의 날이 열렸다.

외국인교사들은 무료 건강검진보다

더 소중한 **질병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전날은 많은 외국인교사들 중 스리랑카에서 온

아누라 '영제' 만났다.

1. 오늘 어떤 자료를 받았나요?

는 검사, 폐 X-ray 등을 검사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2.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3.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또 사람의 생각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요.

4. 앞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의향이 있나요?

전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나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말해 주고 싶어요. 부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꼭 이야기해 줄 거예요.

5.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구기도문'을 함께 고백할 때 정말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의료선교부는 의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는 부서입니다. 매주 오후 2~4시에 계곡교육관 208호, 의료선교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의료선교의 날을 정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진료를 통해 전

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작 그리고 말씀 전파를 통해 아픈 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안세원(간수서, 의료선교부장)

오!
아름다운
세상이여라

우리들의 발견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나니
날마다 바라보는 눈부신 파란 하늘도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네

그분은 늘 우리를 가슴에 품어 주시고
방황하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오! 한없는 사랑 그 은혜 찬미하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 때에
효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도록 허락하시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후르른 하늘의 눈부신 태양빛을 보게 하시고
갈망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이 세상 살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김태현(집사, 17교구)

<종현의 만나>가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해요.

<종현의 만나>가 가정예배 및 구역예배, 그리고 각 교회와 전국립교 양성을 위해 우리 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이다. 한 말씀을 듣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종현의 성도들을 위해 각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되는 <종현의 만나>. 이 <종현의 만나>가 7월부터 대략 3년용과 장년용이 아니라 통합되며 더욱 새로워졌다.

주중에는 매일성경묵상으로, 주일에는 주일성경묵상으로 구상된 <종현의 만나>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함께 살펴볼도록 하자.

실와수묵금토

: 매일성경묵상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매일성경묵상'.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의 시작, 매일 성경묵상과 함께 Here we go!

활용 Tip 말씀 묵상 후 묵상한 내용을 적는 묵상노트. 앞도 말았던 성경 속 단어를 쉽게 풀이한 단어 해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기도제목을 적는 기도제목란을 활용해 보자.

주일

: 구역예배 및 대학·청년 GBS교재, 주일성고 읽습

성고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며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구역예배 및 대학·청년부 GBS 교재. 교재를 통한 교재의 시간을 가져 보자.

활용 Tip 주일에는 성고말씀을 들으며 성고노트를 활용해 보자.

'월 와수묵금토 주' 이제 <종현의 만나> 한 권이면 살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의 쿠키집이나 다이어리가 부럽지 않은 <종현의 만나>!

이 <종현의 만나>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종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444	김예애	고등부	17	김경희	2473	서동원	중등부	16	전형철
2445	김기성	양육반	4	김복화	2474	한종민	중등부	16	정영준
2446	정영준	양육반	13	김복화	2475	서동원	양육반	12	윤영자
2447	신민하	양육반	24	이슬이	2476	유필희	양육반	23	강복희
2448	노현주	양육반	6	한영숙	2477	유도근	양육반	21	김성수
2449	이신희	양육반	8	심지현	2478	이종선	양육반	6	허은숙
2450	정윤진	양육반	10	박진호	2479	오동준	양육반	15	조은숙
2451	최수지	대학부	9	심지현	2480	하지훈	양육반	18	정은정
2452	박선미	양육반	3	오선희	2481	박성준	양육반	21	전경자
2453	이민경	양육반	2	2482	유 총	고등부	1	김진숙	
2454	전종수	대학부	2	2483	임우태	중등부	13	강예슬	
2455	장정민	양육반	20	2484	이하나	대학부	19	고현정	
2456	최은정	청년1부	19	2485	한진아	중등부	13	김보희	
2457	김윤선	양육반	1	2486	성윤재	중등부	13	황예진	
2458	김이애	양육반	1	2487	김세희	22	부유정		
2459	김유미	초등1부	1	2488	장주호	대학부	21	김하나	
2460	김소호	초등1부	1	2489	나익진	초등1부	13	장향옥	
2461	김진희	양육반	18	이향애	2490	이윤상	중등부	23	박세준
2462	홍지민	양육반	4	이영남	2491	최진주	청년1부	1	이은진
2463	이민준	양육반	4	김영자	2492	루미아	외신부	25	황정미
2464	권미경	양육반	5	유종민	2493	카이	외신부	25	황정미
2465	유현선	양육반	5	유종민	2494	카이	외신부	25	황정미
2466	김영정	23	김정숙A	2495	장은숙	양육반	5	김영미	
2467	이정민	양육반	2	박종현	2496	강민지	대학부	11	이은진
2468	김진민	양육반	9	전종수	2497	양정희	청년1부	13	임세훈
2469	오보람	양육반	9	전종수	2498	정영준	양육반	22	김영준
2470	조승희	양육반	2	김기원	2499	이미지	양육반	20	정예준
2471	이명애	양육반	14	오은도	2500	박미희	청년1부	10	이한호
2472	권순주	양육반	22	김경진	2501	류승주	양육반	20	김정민

대학부	(토) 오후 2시
청년1부	(토) 오후 3시
청년2부	오후 4시

0	제2교육관 4층	국
0	제2교육관 4층	영
	제2교육관 2층	지

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층
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2011 출현교회 Publi

합침주
홍사유권

■ 전임연주자 이예스디 장연희 한경숙

■ 선 교 사 송요한

nghyun Church Press

[illegible]